

“中企 납품단가 보장 가장 절실”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협력사 60% “경영 날로 악화...현 상황 위기”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원자재 가격) 보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본부가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개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보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영산업 고정주 회장은 “협력업체에게 중요한 것은 납품 물량이 아니라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압력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말했다.

기린정밀공업(주) 구종길 전무도 “원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설령, 물량이 줄더라도 적정한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매년 연초에 단가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측이 단가인하를 요구하

면서 마진이 점점적으로 줄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4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 애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협력업체 10곳 중 6곳(60.4%)은 ‘현재 경기 위기’라고 응답했다. 또 10곳 중 5곳(50.9%)은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난’(54.7%)과 ‘납품 물량 감소’(20.1%)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전분기(34.7%)보다 16.2% 상승한 수치로 내년 물량감소가 예고돼 경영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위기 극복 방안으로 37.0%가 ‘거래처 다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었고, 35.0%는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고 응답해 중소기업업체들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극복 태도를 보였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37.8%)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및 지원확대’(21.8%)와 ‘자동차·가전제품의 지역산업 다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삼성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광주지역 대기업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열렸다. /김진기기자 jeans@kwangju.co.kr

8%)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및 지원확대’(21.8%)와 ‘자동차·가전제품의 지역산업 다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0%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영태 본부장은 “올해 금호타이어와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의 법정관리 등으로 협력사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대기업들이 발표한 협력사 상생방안들이 잘 지켜져 납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광주시 후원 아래 2005년 전국 최초로 출범했으며, 업체 대표들로 짜여진 상생협의회와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한 실무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대형조선소·블록업체 ‘맑음’

수주량 증가·플랜트 수출 등 내년 전망 낙관

중형조선사 벌크선 과잉공급 우려 물량 감소

전남 대형조선사와 조선블록업체들은 대체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내 주력조선산업인 중형조선사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가 14일 내내 도내 조선산업의 경기 전망을 분석한 결과, 대형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19%)을 보이며 올해 매출목표액(4조2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선블록제조업체 등 기자재 기업들도 국내 대형조선사의 수주량 증가와 동반된 기자재기업의 플랜트 분야 진출 등의 영향으로 작업물량이 증가

세를 보이면서 내년 전망이 낙관적이다.

대불산단내 조선 블록생산업체인 정오ENG, DHMC, 한영산업, 유일 등은 하반기에 상반기에 견줘 30~50% 이상 작업물량이 증가했고 상당수 기업은 내년도 작업물량까지 확보한 상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조선 블록 등 기자재 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도에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기술인력 양성에 나서고 수주활동을 위한 마케팅지원과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전남의 주력 조선산업인 중형조선사는 상반기에 대해 증가한 벌크선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면서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이로 인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도내 중형조선사 수주 상황이 대항조선의 207K급 벌크선 2척과 신안중공업의 34K급 벌크선 1척 등에 불과하다.

특히 선박 가격을 낮게 수주한 탓에 많은 수주 물량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인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소조선 사업 전환 기반구축”과 ‘선박설계시스템 구축’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서남권 중소 조선산업이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제26회 정기총회’가 14일 오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다.

수출 1억달러 돌파 하이트진로, 업계 첫

하이트진로그룹이 국내 주류업계 처음으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류 수출액은 모두 9963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달 초 1억달러를 넘어 연말까지 작년 대비 12.6% 증가한 총 1억528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까지 주종별 예상 수출액은 소주 5333만달러, 맥주 4542만달러, 막걸리 653만달러 등이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이 작년 대비 13.2% 증가한 8088만달러, 미주·유럽시장이 16.9% 증가한 1413만달러, 중화권이 27.6% 늘어난 424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른 성장을 나타냈다.

연도별 수출실적을 보면 2007년 6014만달러에서 2008년 8430만달러, 2009년 9352만달러로 가파르게 성장해오다 마침내 올해 1억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대기업·자산가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새해 업무보고... 中企·서민 부담 완화

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성실신고율 유도를 중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조사대상 선정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법인·재산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선정·조사하고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금융조사, 거

래저·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제도화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신고·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신실한 역외탈세 담당조직을 통해 해외세원정보 수집·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과징·동시조사 등 국제조사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연인 재산을 추적·환수키로 했다. /연합뉴스

특히 국세청은 대자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우회상장·차명주식 등 변칙 거래를 이용한 기업 자금유출과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에 대한 상시조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및 고액채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

현금결제 늘리는 기업 중기청 별점감면 추진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이

기 부여한 별점을 감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별점을 낮춰주도록 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에 운영세칙을 활용

“내년 공동도급제 활성화 주력”

전문건설협 광주·전남도회 정기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장호익)와 전남도회(회장 이상현)는 14일 광주 그랑시아웨딩타워와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열었다.

광주시회와 전남도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신장과 육성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포상하고, 2011년 도 사업 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의결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내년 주요사업으로 주택·주거용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통한 회원사 수주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설노무자 제공 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 재하도급을 허

용비를 50% 확대 등을 펼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9.05 (+12.46)
▲ 코스닥지수	515.00 (+1.59)
▲ 금리(국고채 3년)	3.30% (+0.04)
▲ 원·달러 환율	1,140.40원 (+5.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 등록번호 616-81-68236

주요항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보령)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를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스미체럼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 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 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朝食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 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 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朝食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세계 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 179,000원(주중+주말)

*유류 할증료 별도, 승수기 기간 별도 문의

"목카트투어" 107,000원 (4인 기준)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0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자유관광 - 제주항(17:30)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1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	--	---

● 농 립 ● 정장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협찬 남해고속 시월드고속웨리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전천후 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하고 난방비를 줄여줍니다.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 난방비 절감

본사 전속모델 벨리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